

중국 조선족 소설문학의 측면에서 본 우리말 내부의 번역과제*

김 유 조
(건국대)

1. 들어가는 말

근세사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한민족 동포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체로 그 숫자는 200만 전후를 헤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중국의 개방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주로 상용, 기타의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일단 29만 3천명으로 보는 통계가 있고 이런 추세로 미루어 본다면 2010년까지는 약 100만 명을 넘으리라는 추계도 있다(『홍콩강 신문』 2005년 1월 14일). 이러한 통계 숫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100년이 넘는 거주 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말을 잘 갈무리하여서 공사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마침내 찬란한 문화와 문학작품 등으로 승화시킨 점이라고 하겠다.

* 본 논문은 2002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현재까지 이들의 주요 거주지와 활동 무대는 “연변 자치주”가 일단 모체가 되어 있어서 이들이 승화시킨 문학세계는 통칭 “연변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변 문학의 특기할 점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문학의 리스트에 포함되어서 중국 문학의 일부로 취급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에서 인준하고 임명하는 중국 연변 문학 작가 협회라는 기구와 주석이 존재한다는 사실”(김학천)이며 또한 “월간 문예지 『연변 문학』이 창간 이래로 51년 동안 속간되고 있다”(김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연변을 중심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이래 자생적으로 빛나는 문학 전통을 이어온 조선족 문학의 발전 과정을 일별하면서 독특한 이 지역 문학의 어휘 구조와 서술 구조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표준어와 대비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겨레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호 텍스트 이해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는지를 하나의 과제로 제기코자 하는 바이다.

2. 중국 조선족 문학의 시원과 발전

조선족 문학의 주제 변천과 언어상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족 이민 문학의 시초와 그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일 것이다. 매거할 수 없는 자료 가운데에서도 주요 주장들을 살펴보면 단일 저서로는 『해방 전 조선족 이민 소설 연구』(장춘식 2004) 등을 볼 수 있고 공저로는 『조선-한국 당대 문학사』(김병민 외 2000),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김동화 김승철 주필 1993) 등이 있으며 논문집으로는 『중국 조선족 언론문화 학술 논문집』(채영춘 2001), 등이 보이고 『중국 당대 문학사』(김병환 2001)처럼 중국 전체의 문학 통사에서 조선족 문학 흐름의 줄기를 파악하는 업적도 있다.

중국 조선족 문학의 역사를 대략 100여 년으로 보는 데에는 학계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지만 구체적 시원을 언제로 보느냐, 아이덴티티 문제는 어떻게 범주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음도 사실이다. 연변대학의 김호웅 교수는 『중국 조선족 소장학자 조선학 연구 논문집』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의 기원, 성격 및 작가 범위에 대한 기존 견해를 첫째, 전통의 유구함을 주장하는 원칙과 둘째, 출생지 원칙과 사망지 원칙, 그리고 셋째로 속지주의 원

칙과 속인주의 원칙 등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는 여러 주장을 모두 포용, 정리하면서 결국 100여년에 걸친 조선족들의 이주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 기간에 연변을 중심으로한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우리말로 작품 활동을 한 모든 이들의 문학 창작의 역사가 바로 조선족 문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일환 외 1992: 217-231 참고).

3. 개혁 개방 이후 조선족 소설 문학 작품의 주제 분석

개혁과 개방의 시대는 주지하다시피 1976년 10월에 이른바 “4인방”이 분쇄되면서 시작이 되어서 조선민족 문화는 불사조처럼 다시 소생하여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역사 시기에 들어오면 조선족의 문예지도 확장되어서 문혁 이전에는 『연변문예』와 『송화강』 두 가지밖에 없던 것이 조선족 거주 지구를 중심으로 특징 있는 문학지가 속속 탄생하였다. 즉 “연변지역에는 중국 작가협회 연변분회의 기관지인 『연변 문예』지의 성격 개편(월간, 1985년부터 『천지』로 개칭하고 현재는 『연변문학』), 『아리랑』(총서, 1980), 『문학과 예술』(격월간, 1980) 등이 발간되고 통화지구에는 중국작가 협회 길림성 분회의 기관지로 『장백산』(격월간, 1980), 길림지구에는 『도라지』(격월간, 1979), 장춘지구에는 『북두성』(격월간, 1983), 심양지구에는 『갈매기』(격월간, 1982), 하얼빈 지구에는 『송화강』(격월간 1960), 목단강 지구에는 『은하수』(월간, 1980) 등이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번역 문학지로 북경에 『진달래』, 연길에 『세계문학』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라고 『중국 조선족 문학사』에서는 밝히고 있다(조성일 463-468). 이 시기의 소설 문학을 개관해 보면 정치상 문예상의 좌경노선의 오류를 시정하면서 작가들의 사상을 해방하고 사실주의 창작원칙을 회복하는 이른바 “상처문학”, 혹은 “상흔 문학”의 주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현실, 생활과 투쟁, 인정세태들을 진솔하게 그린 작품들도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조선족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인 이근전의 『고난의 년대』(1982), 김학철의 『격정시대』(1986) 등이 나온 것은 휴화산처럼 간혀져있던 천재성과 걱정이 새 시대의 조류를 타고 활화산처럼 터져 나온 필연이라고 할만하다(장춘식 133).

현동언은 조선족 문학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각현상에 대해 깊이 주목하면서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 선집 4』(이성권 1993)의 「현황과 전망-역사적 변혁기 조선족 소설문학」(470-482)에서 “우리 소설 문학이 정치형으로부터 사회형, 심미형으로 변화되었다”(472)고 전제하고 “사실주의 창작의 복귀, 승화, 변화 발전”(475)을 지적하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 “신사실주의 기법 등의 실험”(478-479)과 같은 현대적 창작기법이 도입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발전 전망의 시점에서 조선족 사회는 기가 막히는 현실의 좌절을 겪게 되고 따라서 문학 풍토 전반도 이런 거대한 주제를 떠안으며 결국 속물적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른바 “출국 열”과 “서울 바람”의 시대가 조선족 사회를 휩쓸고 가면서 문학의 세계에도 열병과 광풍이 엄습한 것이다.

4 “출국 열”과 “서울 바람”의 문학 시대

“출국 열”이니 “서울바람”이라는 표현을 어떤 작가나 평론가가 최초로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일남이 『문학과 예술』 2001년 4호, 119쪽에서 90년대 후반과 앞으로 전개될 상당한 기간들의 시대정신을 일찍부터 그렇게 요약한 것은 확실하다. 그는 중국에서의 서울 바람 소설의 1번지는 1986년에 나온 유원무의 「눈물의 편지」(『아리랑』 25호)로 본다. 서울 바람 주제는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1992년 서울 박문사에서 36인의 조선족 수필집, 『서울바람』이 나온 이래 기약이나 한 듯이 1993년부터는 특히 수필 장르로 문단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바람 속에 1993년도 『도라지』 2호에는 김남현의 소설 「서울 갔다 온 태룡이」와 이여천의 수필 「아버지의 아버지의- 발자국을 찾아서」가 게재되었다. 이여천의 이 수필이 선을 보인 무렵부터 유연산의 수필 「서울 바람」이 『청년생활』(1993년 5호-12호)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1996년에 『서울 바람』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연변녀성』을 비롯한 여러 조선족 정기 혹은 부정기 간행물에 서울바람 소재의 글들이 자리를 잡아서 오늘 이때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서울의 민예당에서 김재국의 수필집, 『한국은 없다』가 나왔고, 중국에

서도 김문학과 김명학은 『한국인이여 상놈이 되라』로 한국, 한국인들에게 통렬한 일격을 가하였으며 이혜선은 『코리아 드림(한국에 나가있는 중국 조선족들)』으로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전후간의 사회현상을 대표하는 장편 소설이 본격 등장하였으니 1996년에 허련순의 『바람꽃』, 1998년에 장혜영의 『희망탑』이 그러한 시대정신을 본격적으로 수렴한 대작이라고 하겠다. 이 두 장편은 이제 20세기의 후반 10년과 21세기의 상당한 기간 동안 동북아 조선족 문학의 소재로 한동안 고착되리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으며 시대정신의 정곡을 찌른 주제 선택이었다고 할만하다.

5. 우리말 내부의 번역과제

1) 어휘, 표현방식, 문법 등의 간극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어 문학 작품을 개관하면서 현행 한국어의 어휘, 어법과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낭만주의에서 근대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분수령에 존재했던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 나오는 심한 사투리 사례와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논리라고 하겠다. 마크 트웨인은 사실주의의 한 특징인 정확한 정황의 묘사라는 측면에서 방언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시도했다할 것이지만 조선족 문학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서술법이나 연술이 중국 소수민족 언어와 문학의 한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언의 일부로 치부할 성격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두 언어, 혹은 북한의 문화를 포함한 세 가지 언어의 현실을 단순히 민족어 내부의 문제로 간단하게 처리할 성격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적절한 텍스트 호환의 틀을 학문적,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시각에 따라서는 민족 분열적 사고라고 힐난하는 시선도 있겠지만 역사적 현실성과 어휘의 측면, 의미론적인 측면의 독자성에 관한 구체적 예시를 하면 이 소론에 동감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차이점은 언젠가는 극복되어야겠지만 그럴 때에도 한시적이거나 이 세 지역에 존재했던 언어상의 간격과 차이는 화석화된 상태에서라도 명증되어야 학문적 입장에서 뿐

만 아니라 현실적 언어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현상에서의 상호 차이에 대한 연구 분석의 당위성이 닿는 맥락은 첫째 의미 파악의 정확성을 위한 것이고 둘째 어느 한쪽의 엄연한 표준적 언어가 다른 일방으로부터는 계층화되어 수용됨으로서 불필요한 상위, 하위 언어의 개념이 형성되거나 심지어 희화적으로 취급되는 반문화적, 민족 분열적 작태로 까지 변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의 표준어와 조선족의 언어를 어휘 측면에서 대비한 것을 예시코자 한다. 이 자료는 연변 과학 기술대학에 상주하고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파견 운영하는 “이화 생활과학 연구소”에서 발간한 『통일을 대비한 연변 조선족 가정생활 기초조사』의 자료에서 주요한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조성화 외 157-164).

***의류 관련용어**

토우짱(套裝)/투피츠, 반파이(半大衣)/반코트, 백화상점 백화점, 마선 씨봉틀, 북장/패션, 북장설계사/패션 디자이너, 슈생짱/캐주얼 웨어,

***생활용어, 용품**

간부질/간부직, 교사직, 공장/일, 궁기/구멍, 눈거리 싸구려, 팬스/TV, 뎀 초귀 볶음요리하는 전기프라이 팬, 반가바합니까?/좋아합니까?, 싸다/(물건을)사다, 싸발하다/싸근하다, 쌍발하다/출근하다, 수음기/라디오, 수평있다/수준이 높다, 수평없다/수준이 낮다, 쎬게 열심히, 잘, 아습채 않다/감사하다, 양백/이백, 일없다/쎬찮다, 출조 차 쎬시, 필업하다/졸업하다, 할랄/하루, 험다/쉽다, 호상/상호, 홀타/쉽다,

***가족 및 친족 관련 용어**

나그네/남편, 상제나다/죽다, 새가/여자아이, 아바이/할아버지, 아메/할머니, 황디/상여,

***기타 밀접한 용어**

電視(실제로는 간자로 쓰고 있음)/TV, 微派爐/보일러, 照相机/사진기, 電腦 컴퓨터, 組合音響/오디오 세트, 錄像器/캠코더, 吸塵器/진공 청소기, 抽水馬桶/변기, 火鍋/신선로, 快餐/스낵, 牛腩/소갈비, 漢堡包/햄버거, 申(아래 위 두자로 직렬)쎬,

방대한 자료를 여기에서는 축소하였지만 이토록 어휘가 변천한 것은 지역적으

로 또 정치적으로 두 언어집단이 서로 오래 떨어져 있어서 발생한 단순한 어휘 변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변천사를 상고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방법론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우선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의 언어 규범화에는 말 할 수 없는 정치 문화 사회적 요인들이 커져서 영향을 미쳤음이 보인다. 같은 책, 「해방 후 우리나라의 조선어 규범화가 걸어온 길」이라는 논문에서 언어학자 정경언은 1945년부터 1977년을 1945-1957, 1958-1963, 1964-1967, 1968-1977 네 단계로 나누어 이 네 시기에 출판된 “모택동 선집” 조선문 판의 단어를 뽑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한어에서의 領袖는 네 단계에 걸쳐서 수령→령수→수령→령수로, 工作報告는 사업보고→공작보고→사업보고→공작보고로, 사실은 사실→사론→사실→사론으로 공자는 로임→공자→로임→공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120). 모언어 자체의 변화나 모언어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언어의 변모된 모습에서는 이렇게 어휘의 변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눈에 띄지만 사실은 의미론적, 수사학적, 문법적 변화가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대중들은 간과한다. 예컨대 언어의 순결 화를 추구한다고 하여서 축구 용어인 “코너 킥”을 “구석차기”나 “모서리 차기”로 남북한에서 경쟁적으로 사용해 보아야 오히려 모언어의 순결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어휘의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도 있지만, 의미론적, 문법적 변질은 어떤 모언어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영어에서의 “코너 킥”에서는 comer가 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사적 대격(adverbial accusative)으로 사용된 것을 남북한이 깊은 사려 없이 경쟁을 한 꼴이 되어서 우리말에도 부사적 대격이라는 새로운 문법체계를 모르는 사이에 도입하는 첫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성나서 돌차기”는 우리 정통문법으로는 돌에서 발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차는 것이듯이 모서리 차기는 모서리에서 차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를 차는 것이 우리 문법이다.

영어에서는 무생물 주어(unanimated subject)가 많은 문장을 이끌고 있어서, 이제 우리 민족도 영어식 표현에는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그녀의 목덜미에 돋은 파란 정맥을 보니, (나는) 슬펐다.”와 “그녀의 목덜미에 돋은 파란 정맥이 나를 슬프게 했다.”의 두 문장을 두고 어느 쪽이 더 훌륭한 표현인가 하는 질문에 서울의 학생들이나 연변 파기대의 학생들이나 거의 모두 무생물 주어가 있는 후자를 선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원 쏘련의 고려인들 표현에서 “머리

를 잘 쓴다”를 “머리가 일을 잘 한다”로, “전화가 통하지 않는다”를 “전화가 일을 하지 않는다”로 김경일이 『흑룡강 신문』1991년 8월23일 기사를 인용하여 『중국조선족 문화론』(313)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언어심리학적 예를 보면서 중국 조선족들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 둘이 탄(談)해 보자”, “저녁에 영화를 팡(방)한다.”, “쌍발(上班)시간에 뎡스(電視)를 보았다”라는 중국식 조선어의 범람에 어떤 원칙이나 대처가 필요한지도 한번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하겠다. 한어의 영향 아래에서 표현방식이 변화했거나 생성된 예를 조금 더 인용해 본다. “그의 말 속에 문장이 있다” “게사니 털과 같은 눈”과 같은 표현 방식은 바로 한족 식 표현이며 함박눈이나 큰 눈을 “게사니 눈 같은 눈”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한족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 관념 구조가 변질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일 없습니다”, “기차표가 긴장합니다”(같은 책 314)라는 표현도 한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미국의 언어학자 및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르(Edward Sapir)와 그의 제자 벤자민 리 워어프(Benjamin Lee Whorf)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 제창한 사피르-워어프 가설은 “인간의 경험과 사고양식은 언어 습관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언어가 다르면 그 세계관도 다르다” (김경일 316 재인용)는 것이다. 이 가설이 초기에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ation)을 형성했으나, 후기에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언어 상대성론(linguistic relativity)으로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논리의 상당부분은 오늘날 일반 상식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표현방식의 변화라는 부분은 예사롭게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대처하면서도 존재하는 말뜻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상호 존엄성을 위해서도 새롭게 규범화된 번역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특별히 상당한 수준을 가진 문학 작품 보다는 신문의 기사나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잡지에서 근본적인 차이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점을 보게 된다. 아래에 신문기사, 그리고 대중 잡지의 짧은 단편들을 그 예로 들면서 번역 과제의 필요, 당위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흑룡강 신문』 2005년 4월 23일의 기사를 예로 들어보는데, 이 기사만으로는 한미 간의 관계가 긴장 상태인지 원만하게 된 것인지 한국인들로서는 판단키 어려운 입장이다.

---계획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게 주권을 엄중하게 제한하게 된다'는데서 한국은 그 이유를 찾았다. 한미시간의 분기가 더욱 명량화되고 있다.

한편 『민간 이야기』라는 잡지는 일반 대중을 위한 가벼운 이야기꺼리로 가득하다. 2000년 2호의 「쓰기 어려운 혼인광고」라는 이야기를 보면 내용 전체는 이해가 어렵지 않겠지만 한국의 독자들이 읽으면 내용 보다 생경한 어휘의 선택이나 기이한 문장의 전개에 우선 웃어버릴 것이다. 우스운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메시지로서 성공이라고 하겠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전달문의 문장을 우습게 보는 것은 두 언어 사용의 집단들에게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을 상존시킨다. 이야기는 어떤 단위에서 과년한 여성 사업 일군을 시집보내고자 상급자가 신문에 널 원고를 작성하여 최고 상급자인 소장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을 조선족 언어로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전략. 이렇게 몇 사람이 함께 모여 적당한 어구를 골라 쓰면서 한동안 바빠 돌아쳐서야 광고는 비로소 다시 수개되었다.
 마 소장은 안경을 걸고 심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수개하니 많이 좋아졌구만. 그런데 당신은 하나의 문제를 홀시했구만. 광고에서 정치 면모를 제기하지 않았구만. 온정이는 다원인데 이는 바로 우리 소에서 지식분자정책을 잘 락착했다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오”
 중략
 “무슨 말이오, 무슨 말. 이 모든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소. 나는 다만 군중들의 의견을 령활하게 집중했을 뿐이지. 후략...” (2002, 2기 4-5).

『장백산』 2004년 2기에 나온 성진숙의 중편소설, 「채팅의 불가사의」에서도 어휘나 의미론적인 차이가 있는 표현들이 산견된다. 주제 자체가 인터넷의 시대에 나온 절묘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번역 과제의 좋은 예문 역할도 하고 있다.

인물이 못난 박말순은 남편마저 개혁개방 바람에 러시아로 돈을 벌러가고 혼자 몸으로 민족문화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인물이 몹시 못난 중년 여성

이다.
어느 날 사촌 언니의 딸, 은영이 전화를 했다.
“이모네 단위 컴퓨터 인터넷에 올랐지요?”
“그런데는?”
“나 래일 컴퓨터를 좀 쓰고싶어서요”
“무슨 일로?”
“쌍왕료텐(채팅)할려구요.”
“마침 ‘8.1절’인데다 일요일까지 겸한 쌍휴일인지라 ---” (중략).
“나 배워줄 신심있나?”
“이제부터 실천해 보자요. 먼저 이모의 왕명(網名아이디)부터 지읍시다.
그래야 왕짱(인터넷)에 오를 수 있어요.”
말순은 너을 “순이”로 한다. 이에 “젊은 놈들은 직통배기로 까박을 주고
무참을 준다.”
그러나 마침내 “남중왕”이라는 쌍왕의 상대를 만난다.
그는 자신을 “해방패 태생애다 보황패 패장이였고 집체호 호장이었다”고
소개한다.
순이는 저도 모르게 감탄을 퍼뜨리며 얼른 답복을 보냈다.
(후략).

어휘와 표현방식에 비하면 문법구조상의 변화는 매우 느리게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장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법의 변화는 그 군체의 언어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결국은 그 군체가 보유한 문화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교수를 호칭할 때 가까운 사이가 되면 이름만 부르는 분위기로 발전하는데, 교포 학생들의 경우 모국 방문을 하여서 한국인 교수들을 “아무개 교수님”이라고 경칭과 함께 부르는 언어문화를 배우고 나면 일반적 사고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 차이는 바로 수평적 사고에서 수직적 사고로의 전환이다. 말하자면 지금 까지는 모든 것을 평등과 평면으로만 보아왔으나 아시아 유교적 사고가 아직도 강한 부모의 나라에 와서 부모의 모국어를 익히면서 마침내 사고 구조에도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이 경어의 경우, 한국말과 많은 차이가 난다. 김경일은 몇 해 전에 있었던 제1회 중국 조선족 장학 퀴즈에서의 예를 들고 있다. 이날 아나운서가 조선족 학생들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모두 “아무개”하고는 “--입니다”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아무에게나 “저”대신 “나”

를 썼다고 한다.(316). 결국 어휘, 표현 방법, 문법 등에서 많은 변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사상이나 사고구조에도 큰 변화가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예지에서는 한국어와 다소 완곡한 차이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중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조선족 언어들을 구체적으로 아래에 적시해 본다. 발표된 작품 년대가 좀 오래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이미 화석화된 언술까지도 고찰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리랑』 1981년 12월호 「무명용사전」(김학철)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꾸 재껴야한단 말일세”(99), “나는 데면데면하게도”(110), “달빛은 여전히 우련하였다”(115), “검박한 옷차림에 용모가 강의한 팽덕회 동지의 호쾌하고도 힘진 말소리는”(119), “중간을 널빤지 두어쪽으로 간막이를 건너 질렀다”(121), “20세기의 목란들이 꼬물도 수집어하는 티가 없어”(122), 등의 놀랍게 차이가 나는 표현이 보인다. 같은 책 「배움의 길」(리원길)을 보면, “큰 오유를 범하여 성예술학교에서 이 산골학교로 내려먹었던 것이다”(132), “나는 상애가 무등 답답해났다”(134), “일شم씨가 얼마나 재구 간지겠냐”(141),

“밑둥이 건똥 들리운다. 급히 나꾸채니 메기가 왈쯔랑왈쯔랑 이리갔다 저리갔다---”(152),

“건강에 매우 불리합니다”(255), “생똥 같은 질문”(383) 등등의 표현도 몹시 생경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구조, 그리고 표현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 점을 사례를 들어 고찰하여 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수많은 구체적 용례들을 범주화 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문제 제기만 하고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상호 텍스트의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아직은 제안의 수준에서 제시하는 바이다.

2) 조선족 언어문자 규범화의 분석과 피드백

중국 조선족 언어문자의 규범화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각 시기별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경과를 재음미, 고찰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상호 텍스트의 호환성을 위한 규범화 구축에 피드백 효과를

기대코자한다. 1990년대 후반에 연길과 장춘에서는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려서 통칭 “우리말”에 대한 대 토론회의 결과를 『KOREAN 규범문제 국제학회 토론회』라는 논문집으로 묶어 내놓았다. 토론회의 표제에 “KOREAN”이라는 영문을 붙여 놓은 점에서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말”이 내포하고 있는 오늘날의 아쉬운 상황논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어쨌든 토론회에서는 한국, 북한, 연변조선족으로 갈라진 한글의 제반 문제를 난상 토론하여서, 나올 만한 문제는 모두 나왔고 가능하면 이 세 갈래의 말을 통합하는 원대한 희망도 제시되었으며 그러한 목표시점까지 나아가는 도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도 도출하였다. 이 소론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당면한 제 문제들이 논의된 그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갖고자한다.

위의 논문집에서 최윤갑은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에 대한 회고와 현재 부딪친 문제」라는 논제로, 당의 민족정책 수행의 과정에 따라 순조로웠던 시기와 순탄치 않았던 시기로 점철된 반세기의 노정을 회고하고 있다 (64-76). 그에 의하면 이 규범화 문제는 1977년 이전 시기와 그 이후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전 시기란 중국 조선족 자체의 규범은 없고 조선(북한)의 조선어 규범을 따른 시기이었다. 우선 어휘 부분을 보면 『조선어 소사전』(1954년)에, 후에는 『조선말 사전』에 준하였고 철자법도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시기에는 평양 중심 언어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조선족의 독자적 어휘, 조어, 문법 등의 규범을 만들고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중에서 중국에서의 특별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는 상공인→공상인, 한의→중의, 등이 예가 될 것이고 우리말다운 원칙으로는 “사과배”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한편 어려운 한어나 외래어는 쉬운 말로 바뀌었다. 추비→덧거름, 슬리퍼→덧신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조선(북한)이 문화어를 제정하면서 북부방언을 많이 포함한 추세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보아서 이와 유사한 어휘를 많이 써온 조선족 사회에 이러한 방언은 급속도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응되는 방언의 경우에도 표준어휘가 없으면 그대로 정착이 되고 어감이 조금만 달라도 역시 표준어로 정착이 되었다. 예컨대 “가장치기: 가장집물을 마구 들부수기”, “손군: (손자, 손녀, 증손, 고손)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그러하였다. 또한 “강냉이=옥수수”, “뜰개바람 = 회오리바람”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1995년 8월에 열린 제9차 중국 조선어 사정 위원회에서는 “4법”(맞춤법, 표준발음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을 일부 수정하고 “한어를 조선글자로 적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4법은 한국과 조선(북한)이 다 같이 쓰는 것은 이곳에서도 쓰고 한국과 조선이 똑같이 수정한 부분은 이곳에서도 수정하고 나머지는 통일이 된 이후로 미루고 이곳에서 쓰는 대로 계속 쓰기로 하였다. 다만 “한어를 조선말로 적는 법”만은 이 곳 나름의 원칙을 정하여 사용한다고 천명하였다. 이곳의 특징이 다르고 동시에 한어는 이곳의 공통어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한국의 문물이 물밀 듯이 조선족 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선어 규범 사업을 밀고 나가던 이곳의 사정은 나름의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외래어의 범람이다. “아나운서”라는 표현이 “방송원”에서 되돌아갔고 “세미나르”라는 러시아어 차용어는 “세미나”가 되었다.

한자 혼용도 50년대에 취소되었던 것이 『연변일보』, 『흑룡강 신문』, 『일요일 경제주간』에서 복원이 된 것은 한국 신문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ㄴ”과 “ㄹ”이 사라지는 간판도 나오고 중국의 인명, 지명 표기도 몇 갈래로 혼돈이 왔다. “코리아 규범화 세미나”에서는 금세기 내에 통일된 우리말을 후대들에게 넘겨줄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는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통일의 길은 멀고 언어는 더욱 세 지역에서 별도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그 외에도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목차에서 주요한 것, 인상적인 것들을 일별해 보면 현재 한국어와 조선족 언어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연역적 접근 방식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주제 중에는 현행 띄어쓰기에 대한 차이점, 철자법, 문장 부호 규범, 발음 규범, 중국 조선 한국의 문법 비교, 조선말의 자모수와 그 순서 및 이름에 대하여, 한자어 표기문제, 외래어 표기법 등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나름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재한 문제점들이 바로 표층구조화 된 것이 우리 한민족 문학의 주제와 텍스트 호환 문제의 해결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임은 물론이겠다. 전학석이 주필로 공저한 『중국 조선족 언어문자 교육사용 상황연구』에는 중국의 여러 민족교육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조선어 언어문자 교육상황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나아가서 우리말이 맞고 있는 위기와 기대로 574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서를 끝맺고 있다. 이 책에서도 조선족 언어는 북한의 평양 문화어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었음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과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북한 지역 사람이었고 1963년경 주은래 총리가 제기한 “조선족 자치주의 언어는 평양에 맞추도록”(186)한 교시에도 그 큰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77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이제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여서 다양한 사상과 외부지향적인 경향으로 새로운 물고를 터주었다고 하겠으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또 하나의 혼란과 도전을 조선족 언어에 미치고 있음도 사실이다.

“연변 교육학회”에서 2002년에 발간한『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곱게』라는 책자의 내용에도 참고 할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현행 조선족 언어를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잘 못 알게 되고 잘 쓰지 않거나 거칠게 쓰게 되는데 이를 바로잡고 나아가서 이곳의 표준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지는 것이다. 그 구체적 실천 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을 쓰지 말고 우리 말 표준어를 쓰자고 한다. 물론 이 때의 우리말이란 한국말이라기보다 이 곳 조선족 군체에서 같고 닮은 말을 뜻한다. 둘째, 한어 식 말을 쓰지 말고 규범적 조선족 말을 쓰자는 것이다. “아이야, 선생이 하리는 작업을 하지 못 했구나”로 말고 “아이구,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못 했구나”로 해야 한다. 셋째, 외국어 어휘를 무조건 섞어 쓰지 말고 한국식 외래어, 예컨대 도마도를 토마토, 휴즈를 퓨즈로 고쳐 쓰는 식도 말아야한다. 넷째, 낡은 옛날 식 말을 말고 현대어를 쓰자. 다섯째, 예절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늬으대기두상, 대갈두 둔하다고야”라는 식은 곤란하고 “할아버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해야 한다(12).

또한 이 저술에서는 한자어의 영향에 대하여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한어 사회에서 우리말을 제대로 쓰지는 각성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어와의 접촉에서 오는 오용, 남용의 예를 범주화하고 있어서 이런 용례집들은 앞으로 조선족 문학작품에 대한 우리말 내부 번역작업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족 언어와 한국어는 말할 나위도 없이 같은 말이다. 다만 북한에서 문화어라고 하여서 평양 중심의 새로운 규범을 세웠고 중국에서 조선족 언어는 이 규범을 따라야한다고 하는 바람에 차이가 났다. 물론 그 근거에는 이곳으로 천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북쪽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말들이 후대로 승계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어의 영향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지금은 상당한 정도 서로 근접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큰 공은 조선족

사회에 돌려야 할 것 같다.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곱게』에서는 심지어 한어의 속담에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우리 속담조차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아직 늦지 않다.”와 같은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은 원래 “양을 잃고 울타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라는 한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양은 여러 마리를 기르고 소는 보통 한 마리뿐이다. 또한 조선족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일없다”라는 표현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별 말씀입니다”라고 해야 옳다고 지적한다. 이 “일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요즈음 젊은 이들 간에 “얼 없습니다”로 되어버렸다고 한다. 물론 이 소론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대한 미래예측 보다는 현황의 파악에 더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곳 언어 사용의 사정을 짐작키 위하여 예로 제시하였다.

문학 평론가 최삼룡은 『격변기의 문학선택』이라는 자신의 평론집에서 「무한한 가능성 - 우리 소설의 문체혁신」이라는 제목으로 90년대 후반의 문학작품 13편을 서술 시각, 주제의식 등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서술 문체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전의 거친 문체에서 새로운 묘사 기법이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예문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분석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변화가 한국어의 영향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비약이 있겠으나 적어도 두 표현 사이의 간격이 많이 메꾸어지고 있음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조선족의 언어생활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격변기를 의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현 단계에서의 두 언어 사이의 간격을 조사 연구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한 민족, 한 핏줄 내부에서의 번역과 통역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해둔다.

맺는 말

이제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소설 문학의 주제 변천과 언어 생활에서의 한국어와 조선족 언어의 차이, 이에 따른 내부 번역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해보았다. 자칫 두 곳의 언어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자체가 한

핏줄의 분리를 피하는 처사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현존하는 차이를 파악하고 두 언어 군체에 내재하는 규범화 현상을 비교 분석하여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학문적 자세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호 텍스트 호환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문학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소론에서 함께 다루는 이유는 문학작품의 이해 가운데에서 두 언어에 엄존하는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하여서 새로운 통 번역 과정에 충실하게 기여코자함이다.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는 잠언도 이러한 시도에 대한 이해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파악해본 조선족 문학의 주제 변천사는 복잡다기하고 의미심장하였으나 마침내 기교적, 심미적 모색의 시대에 접어든 바로 그 시기에, 개혁 개방의 물결에 따른 “출국 열”과 “서울 바람”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서울 바람과 연안 지역으로의 이주 열기도 이제는 그 현장에서의 심각한 반성이 오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서 고향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염원들이 작품 속에 영글고 있다.

이런 문학 주제의 긍정적 변화 속에서 언어 부분도 새로운 작가들을 중심으로 미학적 순치과정을 겪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이 부분은 한국어의 일방적 영향이라기보다는 21세기의 공통 관심사가 상호 주의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성과 모색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어와 영어에 물든 상대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말과 글을 바르고 곱게 다듬자는 작업이 그 하나의 예가 되겠다.

하지만 그런 작업 속에서도 두 지역의 언어차이에 대한 연구와 문학 주제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이어야만 하며 차이의 극복을 위한 쌍방 간의 규범화 작업도 따라야 하겠다. 21세기의 도전은 어떤 방향성을 펼는지 알 수 없으며 한 핏줄의 민족사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감된다. 격변의 시대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한다.

참고문헌

- 고재갑 외. 2001. 『동북아 논단』. 연길: 연변인민 출판사.
국제고려학회(편). 2001. 『조선민족 문학 연구』. 하얼빈: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 김강일(주필). 2001.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길: 연변 인민 출판사.
- 김경일. 1995. 『중국조선족 문화론』. 선양: 요녕민족 출판사.
- 김동화 외. 1993. 『당대 중국 조선족 연구』. 연길: 연변 인민 출판사.
- 김병민 외. 2000. 『조선-한국 당대문학사』. 연길: 연변대학 출판사.
- 김병환. 2001. 『중국당대문학사』. 연길: 연변대학 출판사.
- 김삼. 2005. 『연변 문학』. 김삼 발행인과의 인터뷰, 2005년 2월 28일.
- 김석기. 2004. 「중국조선족 문학의 발전양상 고찰」. 『제8회 재중국 한국학 학술 회의』. 연길: 연대과기대.
- 김영택. 2001. 『TV 예술탐구』. 연길: 연변교육 출판사.
- 김용운. 2002. 「당대중국조선족 여성 문학론」. 『문학과 예술』 2002-5. 연길: 연변사회 과학원.
- 김재국. 2002. 『한국은 없다』. 서울: 민예당.
- 김학천. 2005. 연변 조선족 문인협회 주석과의 인터뷰. 2005년 3월 21일.
- 김호웅. 2001. 「조선족 문학의 역사적 흐름과 그 잠재적 창조성」. 『문학과 예술』 2001-4. 연길: 연변 사회 과학원.
- 노성화. 2002. 『세계문학사』. 선양: 요녕 민족 출판사.
- 문일환 외(편). 1992. 『중국조선족 소장학자 조선학 연구 논문집』. 선양: 민족 출판사.
- 박상일. 1991. 『조선말 새말사전』. 선양: 요녕 민족 출판사.
- 북경대학 조선문화 연구소(편). 1994. 『코리아학 연구』. 선양: 민족출판사.
- 안옥규 외. 2001. 『조선어 접사 사전』. 연길: 연변교육 출판사.
- 오양호. 2002. 『신세대 문학과 소설의 현장』. 서울: 집문당.
- 연변과기대 한국학연구소(역음). 2005.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서울: 태학사.
- 연변대학 조문학부(편). 1996. 『조선언어문학 논문집』. 선양: 요녕 민족 출판사.
- 연변대학 조문연구소(편). 1997. 『KOREAN 규범문제 국제학회 토론회 논문집』. 장춘: 길림출판사.
- 유연산. 1996. 『서울바람』. 연길: 연변인민 출판사.
- _____. 2002. 『혈연의 강들』. 연길: 연변인민 출판사.
- 유은중(편). 2003. 『최신 동의어 반의어 동음어 사전』. 연길: 연변대학 출판사.

- 이광재. 2002. 「90년대 중한 여성소설문학에 대한 소고」. 『문학과 예술』 2002-5. 연길: 연변인민 출판사.
- 이묵. 1992. 『우리문학에 대한 사고』. 하얼빈: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 이성권(주필). 1999.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선집』 1-4. 연길: 연변인민 출판사.
- 이해산(주필). 1999. 『문학작품선』 1-4. 연길: 연변 인민출판사.
- 이해선. 2001. 『코리안 드림』. 선양: 요녕 민족 출판사.
- 장의원(주필) 외. 2002.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곱게』. 연길: 연변 교육학회 출판사.
- 장춘식. 1993. 『시대와 우리문학』. 하얼빈: 흑룡강 조선 민족 출판사.
- _____. 2004.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연길: 민족 출판사.
- 전학석(편). 1996. 『조선어 방언학』. 연길: 연변대학 출판부.
- _____. 2000. 『중국조선족언어문자 교육사용 상황연구』. 연길: 연변대학 출판사.
- 정판룡(편). 1982. 『조선어문 수첩』. 선양: 요녕 인민 출판사.
- 조규화 외. 2000. 『통일을 대비한 연변 조선족 가정생활 기초조사』. 서울: 대한 발전전략연구원.
- 조성일(주필). 1990. 『중국조선족 문학사』. 연길: 연변인민 출판사.
- 조일남. 2001.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 발전 개요(2)」. 『문학과 예술』 2001-3. 연길: 연변사회과학원.
- _____. 2001. 「중국 조선족 장편 소설 발전사(3)」. 『문학과 예술』 2001-4. 연길: 연변사회과학원.
- _____. 2002. 「새시기 조선족 소설비평 연구(2)」. 『문학과 예술』 2002-4. 연길: 연변사회과학원.
- 주영돈 외. 1997. 『중국동북조선족 여성과 항일투쟁』. 연길: 연변대학 출판사.
- 채영춘(주필). 2001. 『중국조선족 언론문화 학술 논문집』. 연길: 연변 인민 출판사.
- 최경남(편)외. 2002. 『조선말성구분류사전』. 연길: 연변교육 출판사.
- 최삼룡. 1999. 『격변기의 문학선택』. 하얼빈: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 최응구. 1982. 『조선어 문체론』. 선양: 요녕 인민 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Chinese,
Chosunjok Novels into Korean**

Kim, Yoo Jo
(Konkuk University)

CHOSUNJOK writers, living mostly around the Yanbien province produced numerous works and continued a literary tradition even after going through the colonial occupation of Japan, during which the usage of the Korean language was strongly subdued. This article provides a cursory review of these remarkable developments and then places a sharper focus on more recent progress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ness follow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article addresses the changing trends in the themes of CHOSUNJOK nove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s of the mainland Koreans and the CHOSUNJOK, as well as the need for translating CHOSUNJOK writings into the mainland Korean language to convey the meaning faithfully. While some may view this as a dangerous attempt to alienate the CHOSUNJOK from the rest of the Koreans, I would argue that accepting the differences based on the analyses of linguistic rules that have formed and diverged over time would create the starting point for bridging the gaps and establishing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texts.

Both the literary and linguistic aspects are addressed in the same article. It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in the context of literature and then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translation which are proposed here. The fact that translation is often considered a literary pursuit in

its own right may help the readers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such an exercise.

The review of CHOSUNJOK novels conducted in this fashion reveals that they display a truly diverse array of profound themes and have now come to a stage of fresh techniques and esthetic appreciation.

Along with these positive development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language used in the recent CHOSUNJOK literary works is making esthetic enhancements, especially among new writers, assuming more resemblance to the mainland Korean language. Rather than a unilateral impact from Seoul, this may be viewed as a result of a positive process of self-reflection and progress based on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groups. The mainstream Koreans are no different in this aspect as they reflect on today's Korean language, which in the view of many has been discolored by the heavy use of Chinese and English words, and try vigorously to spruce it up.

▶ Key Words: Chosunjok, Chosunjok novels, Yanbien literature, Korean-Chinese minority literature, translation of Korean-Chinese novels, differences among the ROK, DPRK and Yanbien languages

김유조

전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제어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mokwon100@hanmail.net

주요관심분야: 소수민족 문학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